2026. 5.18

FI Weekly

채권 김지나
6148 / jnkim0526@eugenefn.com

물가와 재정, 첩첩산중

❝ 지난 주 글로벌 채권시장 투매 확인. **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불안**감이 계속되고 있음. **적극적 재정 투입 가능성도 금리에는 악재.**

❝ 국내 물가와 통화정책 우려 꾸준히 반영되며 금리 상승 중. **금통위 중 유일한 비둘기파였던 신성환 전 금통위원이 퇴임을 앞두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적절**하다고 발언하면서 인상으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확대. **김진일 신임 금통위원 역시 '금융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'반클릭 정도 위가 낫다'는 매파적 견해** 드러냄. 이자율이 적정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이 위기를 막는 데 역할을 한다는 의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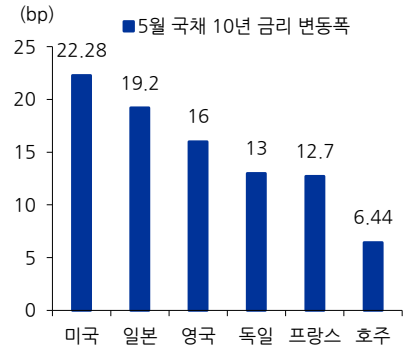
❝ 이재명 대통령, **정부의 적극적인 자본 지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성장에 포커스**를 두는 모습. 만약 **정부가 성장에 치중한다면 물가에는 한국은행이 중점**을 두어야 함. **재정 확대를 통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**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**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강조될수록 한은의 금리 인상 당위성도 올라감**. 현재로서 2차 추경 가능성은 매우 높고, 추경 재원이 초과 세수에서 조달된다면 **직접적인 국채 발행량 증가 부담은 제한적이겠지만, 그 외 재정 사용으로 인한 통화정책 우려 증가는 금리에 비우호적**임.

❝ **재정에 대한 높은 민감도**도 여전함.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후 적극적 재정론과 맞물려 일본 금리 빠르게 상승하며 글로벌 투자심리 불안 확산. 최근 영국 차기 총리의 유력인사인 적극적 재정론을 강하게 옹호하는 앤디 버넘 그레이터 맨체스터 시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승인되면서 영국 길트채 금리도 급등. 2022년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 발표 후 금융시장 충격을 미리 겪는 모습. **당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상쇄할 재원은 제시하지 못해 큰 폭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강했던 학습효과가 재생 중.**

❝ 글로벌리 채권 투매 지속. 단기간에 진정될 만한 트리거는 종전 혹은 물가 우려를 압도할 만한 경제지표 급락. **이마저도 한국처럼 투자심리가 더 좋지 않거나 인상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, 환율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경제지표 급락도 당장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**. 단기적인 금리 급등에 따른 되돌림, 저가매수 등으로 금리 상승폭 주춤할 수 있지만 **금리 하락 요인보다는 상승 요인이 우세. 레벨에 따른 저가매수 보다는 리스크 관리 필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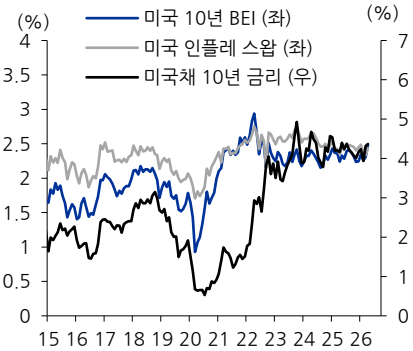
❝ **5월 금통위,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뿐 아니라 인상 소수의견을 확인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.** 경제전망 내 성장률, 물가 전망 상향과 함께 매파적 의견 전면에 나타날 수 있음. **7~8월 금통위 중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업종 호황 장기화 & 유가 레벨 등에 따라 4분기 1회 추가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.**

글로벌 주요국 금리 급등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누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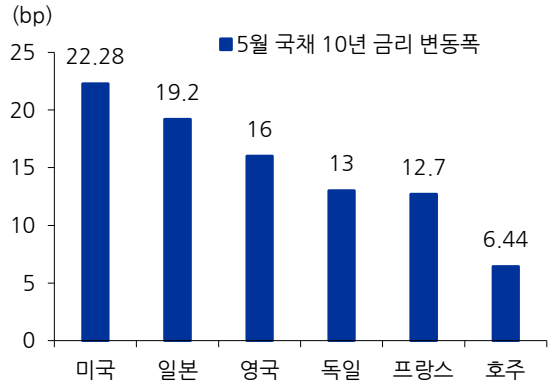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재정 우려에 텀 프리미엄 상승 지속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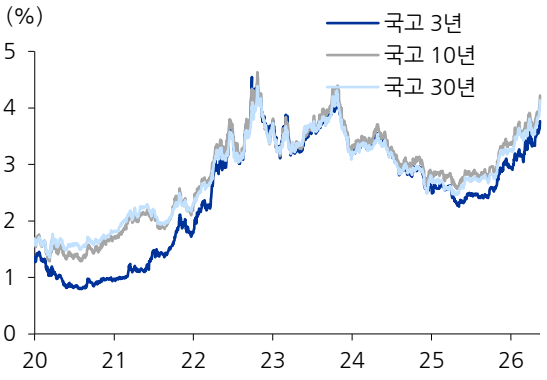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미국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 금리 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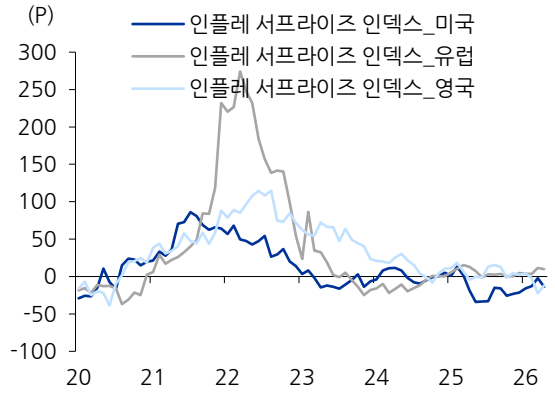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한국도 전구간 금리 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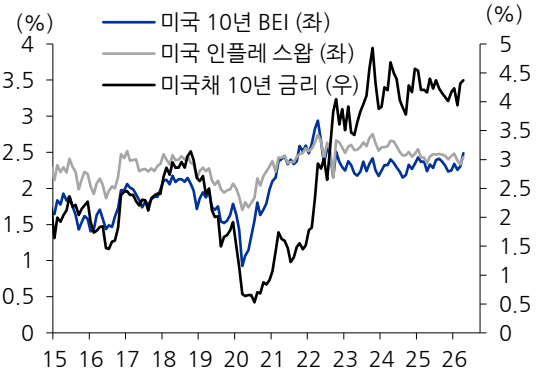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, 유진투자증권

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누적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인플레를 반영한 금융시장 지표

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환율 불안, 인상 우려를 더욱 자극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2025 년 이후 텀프리미엄 (+)대 안착

자료: Bloomberg, 유진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